

주요국 해외인재유치 정책 동향 고찰

[애자일] KIAT 산업기술정책단 정책기획실('24.11.13)



- ◆ 인재 부족은 분야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요국의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 심화
- ◆ 주요국들은 법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외 고급 숙련인력의 유치 활동을 전개 중으로 우리나라 역시 해외인재유치 여건 개선이 필요

1. 개요

- 인재 부족은 분야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
 - 글로벌 교육훈련기관 Manpower Group은 '23년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75%가 인력 부족을 호소한 가운데 동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 연도별 인력부족 응답비중: ('14년) 36% → ('19년) 54% → ('23년) 75%¹⁾
 - 유럽의 경우 최근 조사에서 전체 응답기업 중 약 4분의 3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기술 보유 인력 구인 애로에 직면하고 있다고 응답²⁾
 - *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 미국의 경우 STEM 역량을 갖춘 피고용인(박사학위 보유자)의 45%가 외국 출신³⁾
- 이는 선진국 및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청년 인력 공급이 기성세대의 은퇴를 메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롯
 - AI, 로봇·자동화 등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체제가 현재의 인재 부족을 대응하는 데 크게 부적절*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
 - * 정규교육을 이수한 노동력의 자질이 현재 기업의 수요를 채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자 교육의 부담이 점차적으로 기업에게로 이전되고 있는 중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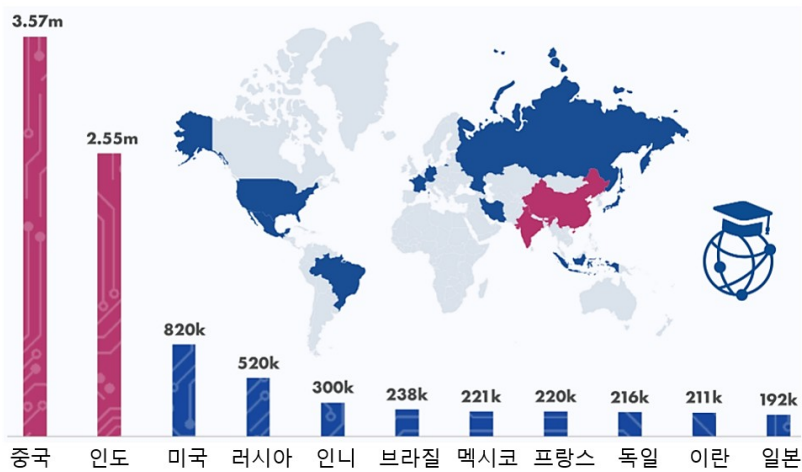
1) Manpower Group, 2024 Global Talent Shortage, <https://go.manpowergroup.com/talent-shortage>
 2) BusinessEurope press release, New survey of European companies highlights critical labour and skills shortages, 2023.10.30.
 3) Darrell M. West, Improving workforce development and STEM education to preserve America's innovation edge, Brookings, 2023.07.26.
 4) Korn Ferry, The Future of Work: The Global Talent Crunch, 2018

- 글로벌 인재 부족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자국 내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 유치에도 정책적 관심을 집중
 - 미국, 유럽 이외에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인재 부족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각국은 그 대책 중 하나로 해외인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⁵⁾

2. 주요국의 해외인재유치 정책

- (미국) 역사적으로 고급인력의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세계 정치 및 경제적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
 -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이 STEM 분야 인력양성 면에서 미국을 크게 앞서 나가면서 미국의 과학기술 패권을 위협

[2020년 현재 STEM 관련 국가별 대학졸업자 수 (단위: 명)]



※ 자료 : CSET, The Global Distribution of STEM Graduates: Which Countries Lead the Way?,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2023.11.27.

- 중국과 치열한 기술 경쟁에 직면한 미국 정부는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인재를 유치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면서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등 다수의 싱크탱크들이 향후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한 이민정책 개선 요구

5) CSET, The Global Distribution of STEM Graduates: Which Countries Lead the Way?,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2023.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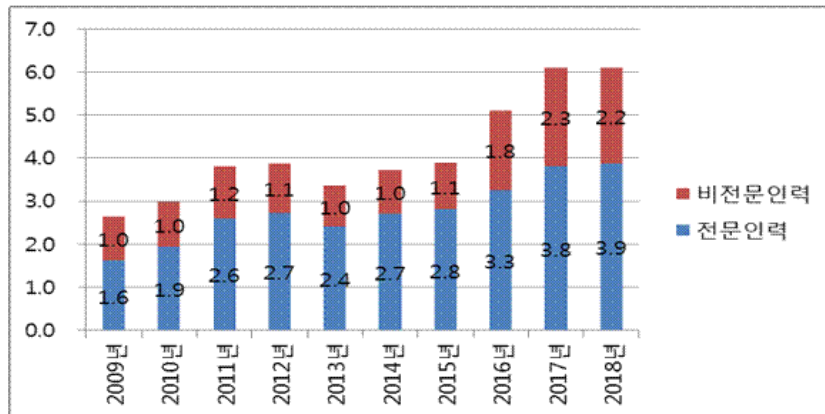
- 바이든 행정부는 '22.1월 해외 STEM 학생과 학자의 유치 및 유지를 목표로 비자 정책을 업데이트⁶⁾

유학생의 미국내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안보부는 유학생의 현장취업실습(Optional Practical Training) : 유학생 졸업 후 3년간 취업 자격 부여 프로그램에 22개의 새로운 STEM 분야 추가 - 기존 90여개의 전공 외에 바이오, 에너지, 환경, 지질, 해양, 클라우드 컴퓨팅 등 공학 분야와 경제학,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를 추가
교환연수 J-1 비자의 미국 취업기간 연장 : 18개월 → 3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O-1⁷⁾ 특기자 비자 등 다른 취업 비자들과 미국회사의 스폰서 없이도 본인 스스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⁸⁾ 등의 형태로도 문호를 확장
공학/과학 학위소지 외국인들의 비이민 취업비자인 H-1B와 L-비자를 우선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상원이 매년 배정되는 H-1B(전문직 취업비자) 연간 쿼터를 STEM 관련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비자 발급을 보장하는 법안을 상정 - 주재원비자(L-1)도 고학력 숙련자에게 우선배정

● (독일) 50년대부터 이주노동자(Gastarbeiter) 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력을 받아 들였으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을 계기로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 독일은 체류법(AufenthG) 제정('05) 및 개정('09), 취업령 개정('13) 등을 통해 고급 인재 유입을 위한 노동시장 개방 추진 중⁹⁾

[독일 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 취업이민 추이 (단위: 만명)]



※ 자료 : Handelsblatt; 코트라 해외뉴스, 독일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해외 인력 수요 급증, 2020.01.31.

6) White House,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ctions to Attract STEM Talent and Strengthen our Economy and Competitiveness, 2022.01.21.

7) 과학, 예술, 비즈니스, 혹은 체육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업적을 성취한(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 개인에게 부여하는 비자

8) 미국의 이민당국이 특정 개인의 능력과 작업물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미국 기업의 고용 오피 혹은 후원 없이도 특정 개인의 이민을 허용하는 제도

9) KIAT 산업기술정책단 정책기획실, 주요국 해외 우수인력 유입제도 현황 - ① 독일,'23.03.15

- 특히 '20.3월부터 '전문인재이민법'을 도입하여 비EU국가 출신의 숙련 전문인력들이 독일로 이민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
 - * 전문인재란 대졸자 혹은 전 교육과정의 최소한 2년인 정규 직업교육을 수료한 자를 의미
- (영국)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저숙련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호를 닫고 숙련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점수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극 유치 중¹⁰⁾
 - '20.2월 영국 내무부(UK Home Office) 산하 기관*이 후원하는 인재에 대해 특정 분야의 우수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더로 판단되는 경우, 최대 5년 거주자격을 제공하는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 도입
 - * 영국학술원(British Academy), 왕립공학한림원(Royal Academy of Engineering), 영국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및 테크네이션(Tech Nation)
 - '22.5월부터 해외 명문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고급인재비자(HPI, High Potential Individual) 제도를 도입
 - (HPI) 영국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졸업생 비자와 유사
 - 지원 자격은 국적에 관계없이 영국정부가 지정한 세계 상위 50위권 (World Top 50)에 2회 이상 포함된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대학은 매년 지정
 - '22년 목록에는 미국대학 가운데, 하버드, MIT 등 25개교가 포함되었으며, 나머지는 캐나다, 호주, 홍콩, 중국,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스위스, 독일, 스웨덴의 대학들이 1~3곳 가량 포함
- (중국) 현재 STEM 인력양성 면에서 세계 최선두를 달리면서도, 국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수 해외인재유치 정책 추진
 - 1980년대부터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산당중앙판공청, 중국과학원 등을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 프로젝트 추진
 - 중국과학원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인재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기관으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조성된 인재 단층현상을 보완하고, 과학원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학술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1994년부터 백인계획*을 실시
 - * 백인계획은 20여 년 동안 해외로부터 수천 명의 청년 학술리더를 초빙
 - 중앙의 각 부처는 백인계획 이후 적극적으로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

10) KIAT 산업기술정책단 정책기획실, 주요국 해외 우수인력 유입제도 현황 - ④ 영국, '23.03.24

정부부처	프로그램	시행연도	내용
교육부	춘취계획	1997	• 인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한 해외유학인재 귀국 후 일자리 마련 프로젝트. 주로 자금과 관련 플랫폼 제공
	장강학자 장려계획	1998	• 교육부와 홍콩 리자청(李嘉诚)회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수특별 초빙제도' 및 '장강학자 업적상', 우수 학자 양성, 집중적 지원을 통해 대학경쟁력 확보 계획
인력 자원 사회 보장부	유학인원귀국 창업지원계획	2006	• 인재강국전략을 시행하고, 유학인재의 모국귀환을 독려하기위해 추진한 프로젝트. 해외우수 유학인재가 귀국 후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과 플랫폼 제공
	적자계획	2009	• "재외동포(화교·화인)의 모국 헌신을 위한 행동계획(海外赤子为国服务行动计划)"의 약칭. 화교·화인 및 유학생이 모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국 과학원	백인계획	1994	• 심각한 인재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학술리더 인물의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 중국에서 가장 일찍 가동한 우수인재 유치 계획
자연과학 기금 위원회	국가걸출 청년계획	2013	• 중국 "과학파트너계획"의 일부분. 과학기술 교류 활성화, 국내 청년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해외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실시한 계획. 1인당 80~100만 위안 경비지원, 연구기한은 4년
공산당 중앙 판공청	천인계획	2008	• 고급해외인재유치계획에 근거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학자 및 교수 1천명을 유치한다는 전략
중앙인재 공작협조 소조	만인계획	2012	• 천인계획의 확장으로 고급인재 선발에 집중 * 만인계획을 통해 10년 간 국가적 인재 1만명 육성(노벨상 수상이 기대되는 과학자 100명, 선도인재 8천명, 우수청년인재 2천명 양성) ¹¹⁾
과학 기술부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	2019	• 중국 과기부는 천인계획을 고급외국인전문가유치계획(2019年度高端外国专家引进计划)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속적인 인재 유치를 추진 ¹²⁾ * '19년부터는 '고급 외국인 전문가 유치 계획'을 통해 첨단신소재, 정보통신 등 전략 핵심 분야에서 인재 유치에 나섰고, '20년엔 해외 고급인재의 영주권 취득 기준까지 완화 ¹³⁾
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	2022	• 중국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인재 자주 양성의 길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최고의 혁신 인재 양성에 힘쓰며 전 세계에서 인재를 모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 ¹⁴⁾
공업 정보화부	치명계획 (启明计划)	2022	• '치명계획(Qiming Plan, 启明计划)' 등의 새로운 이름으로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재개

※ 자료 : 구자역·박승재·김하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중국정부의 천인계획의 시사점, 2014; VOA, 中国千人计划换新马甲 "启明"等项目悄悄招募尖端芯片人才, 2023.08.25.에서 재구성

11) Baidu百科, 国家高层次人才特殊支持计划

12) 科技部办公厅, 科技部办公厅关于申报2019年度高端外国专家引进计划的通知, 2019.01.26.

13) KOSTEC, 중국 과학기술 고급인재 정책 방향 및 시사점, 2021.08.

14) 共产党员网, 二十大报告辅导百问 | 如何理解全面提高人才自主培养质量, 聚天下英才而用之?, 2023.01.16.

- 중국의 다양한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중 천인계획은 가장 주목받는 정책으로 중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엘리트 과학자 유치

[중국의 천인계획]

- 천인계획은 '08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 및 교수 1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취지의 국가차원 해외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
 - 핵심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며, 신흥 학문을 선도할 수 있는 과학자 및 학술리더를 유치하여 중국의 기술 혁신 및 창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천인계획의 인재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5세 미만이며, 유치 후 매년 중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 외국의 유명대학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로 재직, 국제 유명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고급전문기술직과 경영관리직 종사경험자, 독자적 지재권 보유자 등
- 천인계획에 선정되어 유치된 인재들이 중국에 돌아와 혁신프로젝트 및 창업에 종사하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 관련 부처들은 유치된 인재들과 '특별 초빙전문가 계약'을 체결
 - 인재들에게는 본인과 가족에 '외국인 영주권'을 제공하고 5년 이하 유효기간 복수비자 발급
 - 1인당 100만 위안 정착금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에서도 매칭 지원금을 제공
 - 이외 세제 혜택, 각종 생활 보조금과 급여 등을 제공하고 중대기여 인재에게는 지분/주식 제공

- '18.9월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천인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일부 과학자들이 자국 기술 및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를 제기한 후 중국 공산당은 천인계획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말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하고 천인계획 프로그램 중단¹⁵⁾
- 중국 과기부는 '19년부터 천인계획을 고급외국인전문가유치계획(2019年度高端外国专家引进计划)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속적인 인재유치를 추진¹⁶⁾
- '22년부터 공업정보화부 주관하에 '치밍계획(Qiming Plan, 启明计划)'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재개¹⁷⁾
 - * 로이터통신은 '19년부터 '23년까지의 500건이 넘는 정부문서를 검토한 결과, 중국 정부는 '치밍계획'을 통해 해외 인재에게 주택 구입 보조금과 함께 300만~500만 위안의 통상적인 계약 보너스 등 특전을 제공
 - * 치밍계획은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직접 감독하기에 익명성이 보장되며, 반도체와 같이 민감하고 '기밀' 영역을 포함하는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모집
-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 맞서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자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진된 치밍계획은 해외중국인 및 외국전문가 유치계획을 민감하거나 기밀을 포함하고 있는 첨단기술분야에 집중

15) 大纪元, 古风：“千人计划”是变相的盗窃计划, 2021.06.29.

16)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중국 과학기술 고급인재 정책 방향 및 시사점, 2021.08.

17) VOA, 中国千人计划换新马甲 “启明”等项目悄悄招募尖端芯片人才, 2023.0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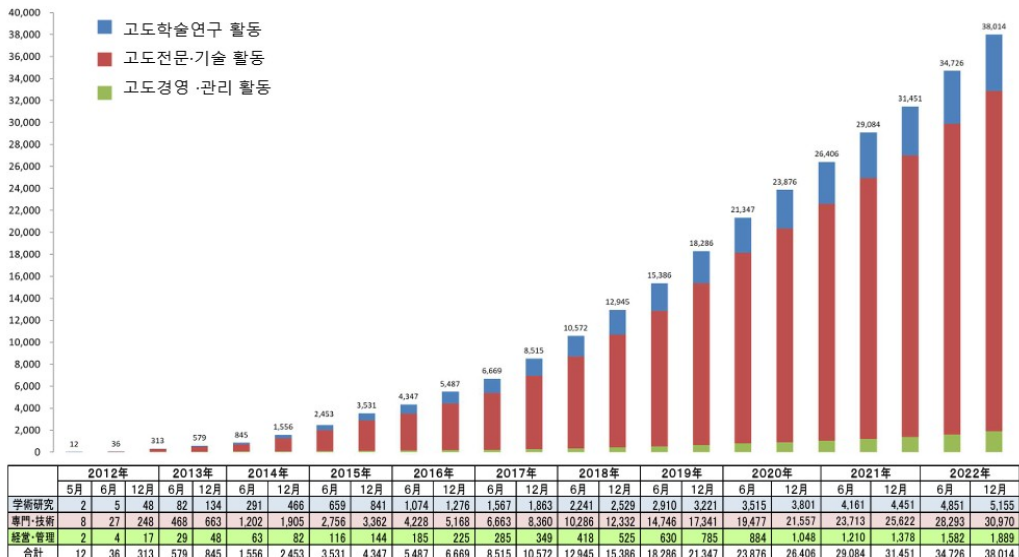
- (일본) 전통적으로 해외인력 도입에 보수적 입장이었으나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가 심화되면서 해외인력 도입 추진 본격화
 - 고도외국인재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도외국인재에 대해 포인트제를 활용한 출입국 재류관리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하는 제도를 '12.5.7일부터 도입하여 시행

[고도외국인재의 활동에 따른 분류]

고도 학술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뛰어난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과학자·대학교수 등이 일본 공사 기관과 계약에 근거해 연구, 연구지도 또는 교육을 수행
고도 전문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변호사, IT 분야 전문가 등이 일본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
고도 경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규모의 기업을 경영·관리하는 임원 등이 일본 공사 기관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관리에 종사

- 포인트가 70점을 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고도 전문직 1호 지위의 체류 자격을 신청 가능하며, 고도 전문직 1호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은 고도 전문직 2호로 승격
 - * (고도전문직1호) ▲복합체류활동 허용 ▲체류기간 5년 부여 ▲영주허가요건의 완화 ▲배우자의 취업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모 대동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사 도우미 사용 ▲입국·재류절차의 우선처리
 - * (고도전문직2호) 고도 전문직 1호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 대상 ▲고도 전문직 1호의 우대 조치 및 거의 모든 취업 자격의 활동이 가능 ▲체류기간 무기한

[고도인재 포인트제 인정 건수 추이]



※ 자료 : 日本出入國在留管理廳

- '23.4월 기존의 제도를 크게 강화한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를 도입
 - * 학술 및 기술 부문에서 학력(석사) 또는 경력(10년)과 연수입(2,000만엔)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그리고 경영 분야 경력 5년 이상 연수입 4,000만엔 이상일 경우 고도전문직1호 지위 부여
 - * 가사도우미 2명까지 고용을 허용하는 등 우대조치도 확충
 - * 배우자에게는 예술, 종교 등 일정분야에서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주28시간 이상의 취업 인정
- (대만) 대만국가발전위원회는 '30년까지 외국인 인재를 1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인 전문인재 유치 및 고용법' 개정안을 '21.10.25일부터 정식 시행

구분	개정전	개정후
외국인 고급인력 인정범위 확대	• 과학, 경제, 교육, 문화예술, 체육, 금융, 법률, 건축디자인(8개 분야)	• 과학, 경제, 교육, 문화예술, 체육, 금융, 법률, 건축 디자인 + 국방 및 정부기관 지정 특수산업
세계 일류대학 졸업자 특혜	• 해외소재대학 학사 졸업자로 2년 이상의 업무경력 필수	• 세계 일류대학 학사 졸업자는 2년 업무경력 필수조건 면제 (QS세계대학랭킹,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대학 랭킹, 미국 US뉴스&월드리포트 세계 대학 랭킹 상위 500위권 내)
영구 거류증 신청조건 완화	• 외국인 고급인재의 영구거류증 신청 전 대만 내 의무거류기간 5년 • 대만 소재대학 석박사 졸업자의 영구거류증 신청 전 대만 내 의무거류기간 5년 존치	• 외국인 고급인재의 영구거류증 신청 전 대만 내 의무거류기간 3년 • 대만 소재 대학 석박사 졸업자의 대만 취업 이후 영구거류증 신청 전 대만 내 의무거류기간(5년) 중 석사 1년 감면, 박사 2년 감면
외국인 고급인재 조세 혜택 및 건강보험 조기 가입	• 외국인 고급인재 소득세 감면 기간 3년 • 대만 거주 후 6개월 후 본인 및 동반가족 건강보험 가입	• 소득세 감면기간 5년으로 연장 • 대만 거주 후 즉시 본인 및 동반가족 건강보험

※ 자료 : 대만 노동부;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대만 취업 기회, 2022.10.13.

3. 시사점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외인재 유치 여건은 여전히 개선 필요
 - '23년 글로벌인재경쟁력지수(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우리나라 인재경쟁력은 134개국 중 24위인데 반해 해외인재유치 순위는 59위 수준¹⁸⁾
 - 우리나라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 ▲열악한 정주 여건 ▲비자발급 어려움 ▲법·제도적 차별 등으로 인해 해외인재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¹⁹⁾
 - * 일본, 싱가포르 등과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인재들이 한국행을 택할 뚜렷한 유인이 없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민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급인력일수록 장기 체류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다수²⁰⁾

18) INSEAD, 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2023, 2023.

19) 세계일보, 해외 인력 수용 양 → 질 전환해야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2024.04.02.

20) 국민일보, 해외 인재가 외면하는 한국... '매력도' 63개국 중 49위, 2023.08.09.

-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먼저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해외인력 유치에 나섰으나 외국인 전문인력 수는 지난 10년간 매년 4만~5만명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

* 첨단분야 학위 소지자, 기술창업 투자자, 연구개발인력 등의 영주자격자는 1,924명에 불과²¹⁾

- 현재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인재풀 축소와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로 해외인재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베이붐 세대 고숙련 인재 은퇴를 대체할 인재가 절대 부족해 시급한 대책 필요
- 고숙련 인재유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과 저숙련 이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간 경제성장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해외인재 유치의 중요성 시사²²⁾
- 실효성있는 해외인재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내국인(재외국민), 재외동포 등에 대한 세심하고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행할 필요

〈참고문헌〉

- 구자역·박승재·김한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중국정부의 천인계획의 시사점, 2014.
- 국민일보, 해외 인재가 외면하는 한국... '매력도' 63개국 중 49위, 2023.08.09.
- 김혜련, 중국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 연구, 인문사회21(10-4), 2019.
- 세계일보, 해외 인력 수용 양 → 질 전환해야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2024.04.02.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대만 취업 기회, 2022.10.13.
- 코트라 해외뉴스, 독일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해외 인력 수요 급증, 2020.01.31.
- 한국은행,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2024.02.01.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중국 과학기술 고급인재 정책 방향 및 시사점, 2021.08.
- KIAT 산업기술정책단 정책기획실, 주요국 해외 우수인력 유입제도 현황 - ① 독일, '23.03.15.
- KIAT 산업기술정책단 정책기획실, 주요국 해외 우수인력 유입제도 현황 - ④ 영국, '23.03.24.
- KOSTEC, 중국 과학기술 고급인재 정책 방향 및 시사점, 2021.08.
- CSET, The Global Distribution of STEM Graduates: Which Countries Lead the Way?,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2023.11.27.
- BusinessEurope press release, New survey of European companies highlights critical labour and skills shortages, 2023.10.30.
- Darrell M. West, Improving workforce development and STEM education to preserve America's innovation edge, Brookings, 2023.07.26.
- INSEAD, 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2023, 2023.

21) 세계일보, 해외 인력 수용 양 → 질 전환해야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2024.04.02.

22) 한국은행,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2024.02.01.

- Manpower Group, 2024 Global Talent Shortage, <https://go.manpowergroup.com/talent-shortage>
- White House,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ctions to Attract STEM Talent and Strengthen our Economy and Competitiveness, 2022.01.21.
- 科技部办公厅, 科技部办公厅关于申报2019年度高端外国专家引进计划的通知, 2019.01.26.
- Baidu百科, 国家高层次人才特殊支持计划 <https://baike.baidu.com/item/%E5%9B%BD%E5%AE%B6%E9%AB%98%E5%B1%82%E6%AC%A1%E4%BA%BA%E6%89%8D%E7%89%B9%E6%AE%8A%E6%94%AF%E6%8C%81%E8%AE%A1%E5%88%92/3584383>
- 共产党员网, 二十大报告辅导百问 | 如何理解全面提高人才自主培养质量, 聚天下英才而用之?, 2023.01.16.
- 大纪元, 古风: “千人计划”是变相的盗窃计划, 2021.06.29.
- 中国政府网, 上海市“万名海外留学人才集聚工程”提前完成, 2006.01.08. https://www.gov.cn/gzdt/2006-01/08/content_150826.htm
- 中关村软件园孵化服务有限公司, 北京海外人才集聚工程, <http://www.zgcspi.com/index.php?m=article&f=view&id=340>
- 上海市科学技术委员会, 2005年上海市浦江人才计划申请指南, 2005.07.14. <https://stcsm.sh.gov.cn/zwgk/kyjhxm/xmsb/20050714/0016-148190.html>
- 无锡日报, 市政府出台“530”计划着力引进领军型“海归”人才, 2006.05.19. <https://ql.wuxi.gov.cn/doc/2006/05/19/825256.shtml>
- VOA, 中国千人计划换新马甲 “启明”等项目悄悄招募尖端芯片人才, 2023.08.2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단 정책기획실 조상동 수석연구원 / csd@kiat.or.kr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